

올해 정책자금 역대 최대 186.7조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발표 중기·소상공인에 128조2000억원 사용... ‘프리 패키지 플랜’ 활성화

금융당국이 한층 어려워진 올해 경제상황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중소기업 위주로 186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총공급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186조7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178조7000억원 대비 8조원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산은이 62조5000억원, 기은이 58조5000억원, 신보가 45조7000억원, 기보가 20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은 지난 2013년 164조1000억원, 2014년 174조3000

억원, 2015년 182조6000억원씩 이뤄졌다.

올해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128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창업·성장·재기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을 도울 예정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업당 최대 2000만~3000만원 한도에 0.5% 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2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전년 대비 정책자금의 25%인 46조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책자금 공급 실적을 분기별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을 채권단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PPP)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성 차입(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채권단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추가대출 기피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또 채무문제로 구조조정을 신청했던 예전 기업들과 달리 최근에는 채무조

정은 물론 신규자금까지 요청하는 회사도 늘어나는 점도 반영됐다.

금융위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파산법원으로 승격되는 만큼 이들과 함께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PPP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PP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협약채권자도 채권단에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오는 3월에 ‘시장진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미래 신성장 분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LG전자, ‘배터리 안전’ 마케팅 본격화

2017년형 노트북과 스마트폰 신뢰도 테스트 등 강조

LG전자가 새해 신제품 라인업에서 연달아 ‘배터리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전자업계를 강타한 배터리 과열을 반면교사로 삼은 모양새다.

17일 업계 관계자들은 LG전자가 2017년형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내놓으면서 배터리 신뢰도 테스트 실시 등을 강조하며 안전성을 내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lg g5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발화로 인해 겪은 논란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2월 MWC에서 선보일 전략 스마트폰 G6에 안전성 테스트를 강화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제품은 전작 G5를 잇는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특히 신제품에 대해 히트 파이프(Heat Pipe) 채택 등 대폭 향상된 방열 성능과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배터리 테스트 및 다양한 극한 조건을 동시에 적용한 ‘복합 환경 검사’로 안전성을 담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구동 중에 발생하는 열이 배터리로 전달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스마트폰 방열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냉각장치인 히트 파이프를 채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뉴시스

이 회사는 발열이 많은 부품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열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분산되도록 방열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LG전자는 신형 노트북에서도 배터리 안전성을 앞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내놓은 24시간 배터리를 장착한 ‘올데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보통 배터리 용량을 위해서는 분리막을 줄여 충전 용량을 늘리곤 한다”며 “하지만 양극과 음극 이온은 만나면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절대 만나선 안되기에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아직 삼성전자가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명,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터리 테스트를 위한 과정들을 상세하게 짚어 설명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제품 신뢰도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쉐보레 ‘올 뉴 크루즈’ 공개행사... 군산공장 정상화 기대

신차 공개 행사... 국내 준중형 세단의 새 기준 제시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17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대선제분 문래공장에서 올 뉴 크루즈(Cruze)의 신차 공개 행사를 갖고 국내 준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크루즈는 2008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115개국에서 4백만 대 이상 판매된 월드 베스트 셀링카이며, 신형 글로벌 제품 개발 아키텍처(Architecture)를 기반으로 9년 만에 새롭게 탄생했다.

올 뉴 크루즈는 차급을 뛰어넘는 차체 크기를 바탕으로 대폭 확장된 실내공간을 갖췄으며, 고강도 경량 바디 프레임과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의 최신 기술인 터보

엔진이 지원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을 대거 탑재했다.

유럽의 오펜(Opel)이 개발을 주도한 차세대 준중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탄생한 신형 크루즈는 기존 모델 대비 15mm 커진 휠베이스와 25mm 늘어난 전장을 통해 뒷좌석 레그룸이 22mm 확장되어 중형차급에 필적하는 실내 거주성을 확보했다.

신형 크루즈는 확장된 차체에도 불구하고 이전 모델 대비 공차 중량을 최대 110kg 줄였으며 최고장력 및 고장력 강판 적용을 확대, 차체 강성을 총 27% 증가시켜 동급 최고 수준의 효율과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쉐보레 2017 All New Cruze-Exterior-02

박철우(38) 군산공장 조립공정 직원은 “물량이 없어 놀아만 했던 뼈아픈 시절을 생각도 하기 싫다”면서 “직원들은 신차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단 한건의 사소한 결함도 후공정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군산공장이 세계경기침체와 쉐보레 유럽철수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생산물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주 2~3일만 근무하는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와 전북도 등은 “올 뉴 크루즈 신차 발표회를 환영한

다”며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 전북자동차산업교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거리 캠페인에 나서 “가품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라며 “군산공장의 신차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크루즈는 전 세계 115개국에서 400만 대 이상 판매된 세계 최고 판매 차종 신형 글로벌 제품개발 아키텍처(Architecture)를 기반으로 9년 만에 새롭게 탄생했다. /뉴시스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육박

수입차 164만대... 전기차는 1만대 돌파, 5년 만에 31배 증가

우리나라 자동차 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22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5년보다 81만3000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대(92.5%), 수입차는 약 164만대(7.5%)로 나타났다.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며 전체등록차량 비중의 1%를 넘어섰다.

특히 2011년 말 344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2016년 말 1만855대로 등록대수가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다. 이 중 절반(5629대)이 제주도에 등록돼 있다.

최근 10년간 소유자 변화 추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 등록차량에 10%에 육박하게 됐다. 또 여성소유차량수도 전체의 21.2%로 463만대를 넘어섰다.

청년층(만 20~29세)의 경우 차량소유가 전체차량소유의 2.6%에 머물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차의 등록은 10년 사이에 약 2.4배 증가했다. 차량령 10년 초과 차량의 대수도 꾸준히 늘어 2016년 전체차량의 30%를 넘는 672만대에 이르렀다.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83만5000대로 2015년 184만7000대 보다 1만1253대 감소했다. 국산차는 156만2000대(85.1%), 수입차는 26만9000대(14.7%)로 나타났다. 수입차의 경우 2015년 28만8000대(15.6%)보다 1만9000대(6.7%) 줄었다.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8만건으로 2015년 366만6000건 보다 11만3442건(3.1%) 증가했다. 사업자 거래는 232만7000건(61.6%)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7만4000건(36.4%)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102만2000대로 2015년 97만5000대 보다 4만7000대(4.9%) 증가했다. /뉴시스

사전 계약 시작... 23일부터 양산, 2월7일 본격 판매

한국지엠(주)의 신차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가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생산공장과 지역사회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지엠은 국내외 언론인들을 초청해 가진 신차 ‘올 뉴 크루즈’ 공개행사를 갖고 오는 23일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8일 신차 양산기념식을 하고 다음 날인 7일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준중형 세단인 ‘올 뉴 크루즈’를 생산하게 될 군산공장 임직원들은 공장 정상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순경 군산공장 대외협력담당장은 “한국지엠 차 사주기 운동을 펼치며 공장 정상화를 바랐던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차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군산공장 임직원들은 올 뉴 크루즈를 무결점의 차량으로 생산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안

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